



도서관용어해설

장서개발

Collection Development

□ 정서개발의 정의

도서관 장서의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하며, 선택정책결정, 이용자의 요구파악, 이용조사, 장서평가, 자료의 선정, 자료분담계획, 장서관리 및 폐기 등을 포함한다. 여러 형태를 가진 도서관 자료의 균형 잡힌 장서를 계획하고 수집하는 과정이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도서관의 자료를 선정하고 장서를 개발하는 업무는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하는 일련의 도서관 업무 중 첫 단계이므로 다른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도서관 업무를 전산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유능한 사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서관장서가 빈약하다면 봉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장서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장서개발은 가장 중요한 도서관 업무 중 하나이다(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송영희 등 공저, 2005).

장서개발의 이론과 실제 논의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장서개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자연과학 학문분야의 비약적 발전으로, 그동안 인문학 중심의 장서개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장서개발의 범주가 수집, 선정, 장서구성 중심에서, 점차 더 넓은 범위의 정책, 계획, 분석, 협력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관련 학자와 사서들에 의해 장서개발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제 장서개발에는 장서정책 개발, 자료예산할당, 선정, 장서분석, 장서사용과 이용자연구, 장서개발직원의 훈련과 조직, 보존, 협력장서개발 등이 포함된다(이란주, 2005).

장서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도서관

의 유형과 봉사대상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장서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장서기준 및 장서 성격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장서개발에 적용해야 한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장서개발 지침에 의하면 장서개발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 서문(Introduction)
- 일반적 지침(General statements)
- 서술적 지침(Narrative statements)
- 주제범위(Subject profiles)
- 장서평가방법(Collection evaluation methods)
- 장서수준측도(Collection depth indicators)
- 언어(Language codes)
- 정책집행 및 갱신주기(Policy implementation and revision timetables)

현대의 기술적인 발전 덕분에 도서관은 이제 소장에서 접근으로 전략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서개발정책 역시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장서를 개발하는 업무는 전통적인 인쇄장서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욱 복잡한 면이 있어 디지털자료를 위한 별도의 장서개발 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디지털 장서개발을 위해 따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 의회도서관의 경우에는 전자정보원을 입수장서(acquire), 수집자원(collect), 연결자원(link)으로 나누어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장서 선정 기준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국립도서관 역시 장서부분을 일반자료와 전자자료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이지연, 2007).

[참고 자료]

1.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96
2.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송영희, 노진영, 권은경, 윤혜영, 2005
3. Guidelines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using the conspectus

model, IFLA, 2001

4.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이란주, 2005

5. 인용정보와 연구자 홈페이지를 이용한 디지털 도서관 장서개발 방안 연구, 이지연, 2007